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계란자조금 존재의 이유

농가 거출율 향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

금 거출율을 올리고, 농가들의 참여율을 높여 채란산업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계란자조금은 2009년 6월 본회(대한양계협회) 사무실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을 시작하게 되었다. 과거 1992년 축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임의자조금을 시작한 양계협회는 축산물의무자조금법(축산물소비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2년 이후 계란과 닭고기 자조금을 타 축종보다 먼저 출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자조금 거출처 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돈, 한우, 낙농이 의무자조금을 시작한 이후 2009년 막차를 타고 행보를 시작했다. 계란자조금은 자조금 거출을 계란, 사료, 병아리, 노계도계장 등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노계도계장에서 거출을 시작하였다.

사무실도 관련 협회내에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소비자들이 많은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계도계장에서의 거출이 한계를 보이면서 한때는 자조금사무국에서 직접 뛰어들어 거출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농가들의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가 아닌 명맥만 유지하는 현실에 직면했고, 다시 도계장에서의 거출로 변경해 2013년 7월부터 도계장에서의 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은 산란성계의 불안정한 가격형성, 시 발생에 따른 외부적 요인, 거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산란성계육 유통의 문제점 등으로 자조금의 안정적인 조성에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도계장이 아닌 최종산물인 계란으로부터 자조금을 거출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의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은 현재 560여개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정용 업소용 계란의 100%가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으니 이제는 가능하다. 계란으로의 거

출시 판매가의 0.5% 적용시 115억원까지 거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본지 2024년 5월호).

현재 계란자조금 사업은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수급안정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농협중앙회, 양계협회에 이어 산란계협회가 새로 합류하면서 공동으로 참여, 실질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계란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간의 명분싸움과 정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란자조금 거출율을 높여 진정한 취지의 계란자조금사업을 통해 채란업의 발전을 꾀하는데 집중할 때이다.



지구 온난화 양계장도 예외가 될 수 없어

피해 없도록 세심한 농장관리 필요할 때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전 세계의 기후가 크게 변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 기온이 평균 1°C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간의 상승률은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봄과 가을의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작물의 수확기가 조정되어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이 남부지역으로 이동되고, 대구지역이 주산지로 생산되던 사과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30°C가 넘는 낮 기온이 연일 이어지면서 농가들은 혹서에 대비한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기팬 가동, 지붕 물뿌리기, 차광막 설치, 적정 사육두수 유지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농장주변에 활엽수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소량씩 자주 주거나 시원할 때 사료를 공급하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위생관리를 위해서 농장의 정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 등이 당연히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전자동 제어가 되는 최첨단 농장이라 하더라도 자주 농장 내부 상태를 살피고 기계작동 여부도 세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가 이어지고 비가 자주 오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전기 설비 안전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가발전기 등 비상용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닭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폐사가 발생하면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서기에는 더위는 물론 정전 등 다각도의 세심한 농장관리가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한번 더 농장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양계**